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8. Vol. 21, No. 4, 109-126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시작시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18부터 39세까지의 남녀 2,583(남: 1,247, 여: 1,336)명을 대상으로 발달과업 질문지를 사용하여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은 무엇이고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 지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으며 성인초기의 시작시점은 언제인지를 추정하려고 하였다. Havighurst(1952)의 8개의 발달과업을 포함하여 전체 15개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 지각을 측정한 결과, Havighurst의 발달과업 중 '마음이 맞는 사람과 집단을 형성한다'를 제외한 7개의 발달과업이 한국인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7개의 발달과업 중 6개의 발달과업에서 더 높은 성취비율을 보였으나 중요도 지각에서는 5개 발달과업에서 남성들보다 더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들이 그 과업을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가족관련 발달과업을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였고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에서는 이 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이 성취한 여성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남성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함께 남성들은 30세에 그리고 여성들은 28세에 성인초기를 시작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발달과업, 성취수준, 중요도, 성인초기

발달심리학 연구의 초기부터 인간의 발달은 연령을 기초로 구분되었고, 그것은 발달단계의 개념으로 보편화되었다. 일찍이 Havighurst(1952)는 전생애 동안의 발달을 여러 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는 해결해야 하는 독특한 과업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발달과업(development tasks)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므로 발달과업이란 특정한 연령이나 단계에서 개인이 성취해야 하는 활동이나 목표로 정의된다. 중요한 것은 한 단계에서의 발달과업의 성취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이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발달과업은 개인의 성공적 적응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www.kci.go.kr

그렇다면 발달과업의 내용과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발달과업은 개인의 생물학적 능력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기대나 규범간의 함수이기 때문에(Heckhausen, 1999; Neugarten & Datan, 1973), 개인과 변화하는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시 된다. 다시 말하면 발달과업은 전생애의 상이한 시점에서의 정상적 발달에 대한 우리 문화의 정의를 표상하므로 Havighurst가 제안한 발달과업은 문화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Havighurst는 표 1과 같이 8개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을 제안하였지만, 최근의 연구자들은 조금씩 차이나는 발달과업을 제시한다. 그 예로서 Masten과 그 동료들(Masten 등, 1999; Shiner & Masten, 2002)은 청년후기와 성인초기 동안 일과 교육, 이성교제 그리고 친구관련 과업을 핵심적 발달과업으로 제시하였고, Schulenberg와 Bryant 및 O'Malley(2004)는 교육과 일, 경제적 독립, 낭만적 몰입, 또래몰입, 물질사용회피, 그리고 시민의식을 포함하는 7개의 발달과업을 성인초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James와 Whitte 및 Galbraith(2006)는 Havighurst 시대와는 다르게 학습자 역할이 성인초기 동안에도 계속된다고 보고함으로써 시대변화와 함께 Havighurst가 제안한 각 발달단계에서의 역할이나 과업이 수정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흥미롭게도 발달과업의 성취는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청년기(Seiffge-Krenke, 1998, Seiffge- Krenke & Glelhaar, 2007)와 성인초기(Heckhausen, 2000; Seiffge-Krenke & Gelhaar, 2007) 모두에서 여성들의 발달과업 성취수준이 남성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 그 이유로서 Gilligan(1996)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신체적으로 더 빠르게 성숙하고 관계발달과 관련된 발달과업에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표 1 Havighurst가 제안한 성인초기 발달과업

1. 배우자를 선택한다.
2.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3. 가정을 꾸민다.
4. 자녀를 양육한다.
5. 가정을 관리한다.
6.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7. 시민의 의무를 완수한다.
8.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

더욱이 Havighrust가 발달과업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을 당시의 청년기는 대략 12세부터 18세까지였고 성인초기는 18세부터 35세까지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발달의 가속화 현상으로 최근 더 어린 연령에서 사춘기를 시작할 뿐 아니라 청년기 동안 어떤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지도 불확실해짐으로써(Galambos, Turner, & Tilton-Weaver, 2005) 청년기의 시작시기와 끝나는 시기는 물론 성인기의 시작 시기도 모호해지고 있다. 예를들면 성인기 시작을 신호하는 필수적 요소인 공식적 교육을 끝내고(Arnett, 2000), 결혼과 부모역할(Shanahan, 2000)을 수행하기 위해 집을 떠나며(Cherlin, Scabini, & Rossi, 1997), 그리고 안정적인 전일제 직업을 갖는 것(LeBlanc & Wolff, 2006) 모두 점차적으로 연기되고 있다. 14세부터 23세까지의 젊은이들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Seiffge-Krenke와 Gelhaar(2007)은 23세까지 성인초기 발달과업을 시작하지도 성취하지도 못했다고 보고했을 뿐 아니라 청년기-특징적 발달과업들은 청년초기에 이미 달성되는 반면, 대부분의 성인초기 젊은이들의 발달상태는 저조하다고 보고함으로써 청년기 시작은 빨라지고 성인기 시작은 늦어졌음을 입증하였다.

이와같이 특정한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할당된 시기는 더 불분명해졌다고 할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각 발달단계마다 각 개인이 성

www.kci.go.kr

취해야 하는 규범적 발달과업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 증거로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미성숙했다거나 가짜로 성숙했다고 보고하는가 하면(Galambos, Barker, & Tilton-Weaver, 2003; Galambos, Turner, & Tilton-Weaver, 2005), 성인초기 성인들도 자신이 성인이 아니라 성인기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고 응답하여(Arnett, 2003) 규범적 발달과업의 존재를 시사하였다. 특히 Arnett (2000)같은 연구자는 청년기의 지연된 발달을 고려하여 청년기와 성인초기 사이에 새로운 발달단계로서 '출현하는 성인기'(emerging adulthood)를 제안하고 안정된 성인역할과 책임을 맡기 이전인 18세부터 25세까지의 시기를 성인기 진입을 위한 과도기로 설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인초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일과 관계형성 능력의 출현이 더 이후의 연령단계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성인초기에 진입하기 이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출현하는 성인기의 개인들은 아동기와 청년기의 의존성에서는 벗어나지만, 아직도 성인초기의 규범적 역할과 책임을 맡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이동할 수 있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다(Arnett, 1997, 2000; Shanahan, 2000).

Arnett(1997)의 주장과 일치되게, 최근 결혼이 늦어짐으로써 젊은이들은 과거보다 더 오랫동안 부모의 집에 남아있고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더 많아졌다(Mogelonsky, 1996). 또한 직업적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더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도 늦어짐으로써 부모로부터의 개별화와 자율성의 획득은 자연스럽게 지연되고 있다. 동시에 현재의 젊은이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영구적으로 무자녀로 남는 사람들도 있다. 더욱이 높아진 이혼율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부모들도 굳이 결혼을 강요하지 않으며, 자녀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도록 압력을 가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로부터 한국의 젊은이들도 예외가 아니므로 현시점에서 한국인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은 무엇이고 시작시점은 언제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Havighurst가 제안한 8개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에 덧붙여 Schulenberg 등(2004)이 제안한 물질사용회피를 포함하는 건강한 생활양식 관련 과업과 James 등(2006)이 제안한 학습자 역할에 해당하는 자기계발 관련 과업 및 직업전환과 관련한 과업이 성인초기 발달과업에 포함되었다. 또한 한국인들은 가족관계를 중요시하고(장휘숙, 2008) 자기 자신과 함께 자녀, 배우자, 부모를 포함하는 가족요소나 인간관계 요소를 행복의 중요한 근원으로 지각하기 때문에(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4; 장휘숙, 2008; 현경자, 2004), 형제자매와 부모 관련 과업 및 노후준비 관련 과업을 포함하여 전체 15개의 발달과업이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Havighurst가 제안한 성인초기 진입연령인 18세부터 Levinson(1978) 연구에서 성인초기 정착기에 해당하는 39세까지의 개인들을 포함하였고, Seiffge-Krenke와 Gelhaar(2007)의 연구에서처럼 개인이 지각하는 각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특정한 발달과업을 성취한 수준에 따라 그 과업에 대한 중요도 지각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검증하려고 하였다. 동시에 발달과업의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성인초기 시작시점이 언제인지도 추정해보려고 하지만, 횡단적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탐색적이고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www.kci.go.kr

방 법

연구대상자

만 18세 부터 39세까지의 젊은이들을 연구대상자로 표집하였다.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함께 시작시기를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므로 만 연령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사람과 설문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표 2와 같이 전체 2,583명(남: 1,247명, 여: 1,336명)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연령과 성별(단위: 명)

연령	남성	여성	전체
18세	64	93	157
19세	66	60	126
20세	50	51	101
21세	48	63	111
22세	52	55	107
23세	62	69	131
24세	52	54	106
25세	79	66	145
26세	75	74	149
27세	66	53	119
28세	61	60	121
29세	56	62	118
30세	62	50	112
31세	63	48	111
32세	57	59	116
33세	52	59	111
34세	56	72	128
35세	48	61	109
36세	49	57	106
37세	49	68	117
38세	38	51	89
39세	42	51	93
전체	1,247	1,336	2,583

전체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20대 남성의 8.9%와 여성의 12.5% 그리고 30대 남성의 69.8%와 여성의 81.2%가 결혼을 하였고, 20대 남성의 64.2%와 여성의 64.0% 그리고 30대 남성의 98.4%와 여성의 57.3%가 취업한 상태였다. 표 3에 제시된 전체 인구의 결혼 및 취업비율과 비교하면, 20대 여성들의 결혼비율을 제외하고 결혼과 취업비율은 전체 인구의 비율과 매우 유사하였다. 또한 20대 남성의 60.5%와 여성의 67.5% 그리고 30대 남성의 83.4%와 여성의 71.1%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전체 인구에서 20대 남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13.6년, 여성은 13.9년 그리고 30대 남성은 13.8년, 여성은 13.3년이어서(통계청, 2006)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더 높은 학력수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는 2007년 12월 중순부터 2008년 3월 말까지 수집되었고, 18세부터 21세까지의 대학생들의 자료는 대전의 C대학교에서 그리고 22세부터 39세까지의 성인들의 자료는 서울, 경기, 대전, 경남, 충북, 충남의 6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수집되었다.

표 3 표본과 전체 인구의 결혼비율과 취업비율(단위: %)

	결혼				취업			
	남		여		남		여	
	전체인구	표본	전체인구	표본	전체인구	표본	전체인구	표본
20-29세	9.7	8.9	23.4	12.5	64.2	64.2	63.3	64.0
30-39세	67.6	69.8	82.5	81.2	93.3	98.4	56.5	57.3

출처: 통계청, 2008.

www.kci.go.kr

측정도구

1) 발달과업의 구성

성인초기 발달과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Havighurst(1952)가 제안한 8개의 성인초기 발달과업과 선행연구의 결과 및 우리 문화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자가 추출한 발달과업을 포함하여 표 4와 같이 15개의 과업을 성인초기 발달과업으로 선정하였다. 15개의 발달과업 중 7번과 8번의 발달과업 즉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와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항목은 Havighurst 가 제안한 성인초기 발달과업의 7번 항목인 '시민의 의무를 완수한다'는 과업을 풀어서 질문한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이 연구에서 첨가된 발달과업은 6개였다.

표 4 성인초기의 발달과업

1. 배우자를 선택한다.
2.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3.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4. 자녀를 양육한다.
5. 가정을 관리한다.
6.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7.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8.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9.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
10. 건강한 생활양식(위험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험한 성행동도 하지 않는다)을 확립한다.
11. 자기계발(새로운 정보를 얻고 기술을 습득)을 위해 노력한다.
12. 형제자매와 잘 지낸다.
13. 부모님께 효도한다.
14. 새로운 일(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15. 노후준비를 한다.

2) 발달과업 질문지

발달과업의 성취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15개 발달과업에 대해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1점), '막 시작했다'(2점), 그리고 '이미 성취했다'(3점)의 3점 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발달과업을 중요시하는 정도는 각 발달과업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1점), '약간 중요하다'(2점)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3점)의 3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 지각에서의 높은 점수는 각 발달과업을 이미 성취했거나 발달과업을 매우 중요하게 지각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결 과

1. 성인초기의 발달과업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을 규명하기 전에 발달과업의 성취수준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x^2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같이, 네 개의 발달과업 즉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발달과업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후속 분석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인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발달과업 질문지에서 '이미 성취하였다'로 응답한 남성들의 비율을 표 5에 그리고 여성들의 비율을 표 6에 제시하였다. 자신을 성인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0% 이상인 시점을 성인기 시작시점으로 추정한 Arnett(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표 6과 표 7에서 18세부터 39세까지 어느 연령에서든 응답자의 50% 이상이 성취하였다고 응답한 과업들을 성인초기 발달과업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에서 '배우자를 선택한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결혼해서

www.kci.go.kr

표 5 성별에 따른 발달과업의 성취정도에 대한 x^2분석결과

발달과업	x^2분석결과
1. 배우자를 선택한다.	$x^2_{(2)}=7.753$, $p<.05$
2.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x^2_{(2)}=14.241$, $p<.001$
3.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x^2_{(2)}=11.377$, $p<.01$
4. 자녀를 양육한다.	$x^2_{(2)}=6.140$, $p<.05$
5. 가정을 관리한다.	$x^2_{(2)}=11.480$, $p<.01$
6.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x^2_{(2)}=1.539$, $p>.05$
7.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x^2_{(2)}=14.538$, $p<.001$
8.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x^2_{(2)}=21.763$, $p<.001$
9.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	$x^2_{(2)}=1.431$, $p>.05$
10. 건강한 생활양식(위험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험한 성행동도 하지 않는다)을 확립한다.	$x^2_{(2)}=23.338$, $p<.001$
11.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x^2_{(2)}=.104$, $p>.05$
12. 형제자매와 잘 지낸다.	$x^2_{(2)}=15.383$, $p<.001$
13. 부모님께 효도한다.	$x^2_{(2)}=.875$, $p>.05$
14. 새로운 일(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x^2_{(2)}=7.314$, $p<.05$
15. 노후준비를 한다.	$x^2_{(2)}=9.166$, $p<.01$

가정을 이룬다', '자녀를 양육한다', '가정을 관리한다',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의 7가지 발달과업이 성인초기 발달과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한 생활양식을 확립한다'와 '형제자매와 잘 지낸다'는 남성들에서는 각각 24세와 19세에 성취했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미 50%이상이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19세와 20세를 제외하고 18세 이후부터 모든 연령에서 '건강한 생활양식을 확립한다'의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들이 50%이상이었다. 또한 '형제자매와 잘 지낸다'에서는 18세와 19세 집단에서 이미 성취한 사람들이 50%이상이어서 이 두 개의 발달과업은 청년기나 Arnett(2000)이 제안한 출현하는 성인기의 발달과업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한다'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부모님께 효도한다',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노후준비를 한다'의 발달과업은 남녀 모두 어느 연령에서도 '이미 성취했다'는 비율이 50%에 이르지 못해 성인초기 발달과업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다. 결국 이 연구에서 사용된 15개의 발달과업 중 7개의 과업이 한국인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이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 중 6개의 발달과업은 Havighurst가 제안한 성인초기 발달과업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표 5에 제시한 x^2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이 연구에서 확인된 7가지 발달과업에서의 성차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7과 같다. 7개의 발달과업 중 '직업생활을 시작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발달

www.kci.go.kr

표 6 남성들의 발달과업 성취 수준

발달과업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1	4.7	1.5	4.0	4.3	4.0	1.6	9.6	7.6	5.3	13.6	27.9	33.9	37.7	34.9	56.1	46.0	73.2	81.3	81.3	93.9	94.7	92.9
2	9.	3.0	0.0	0.0	2.0	1.6	0.0	2.5	1.4	0.0	8.2	10.7	19.4	12.7	24.6	25.5	37.5	44.7	60.9	55.1	75.7	45.2
3	0.0	0.0	0.0	0.0	4.0	0.0	3.8	1.3	0.0	3.1	18.0	21.4	35.5	27.0	57.1	42.3	71.4	73.9	82.6	85.7	89.5	92.9
4	0.0	0.0	0.0	0.0	2.0	0.0	5.8	2.5	0.0	7.7	6.6	9.1	14.5	19.4	38.2	34.6	48.2	55.3	62.5	67.3	70.3	69.0
5	0.0	0.0	0.0	4.3	2.0	8.1	7.7	6.5	9.5	3.1	11.5	11.1	17.7	19.4	34.5	33.3	44.4	53.2	65.2	61.2	67.6	69.0
6	0.0	0.0	2.0	0.0	10.0	1.6	7.8	14.	18.7	23.1	32.8	31.5	51.6	50.8	55.4	62.7	72.7	70.2	72.3	69.4	80.6	73.8
7	30.2	38.1	30.0	28.9	31.3	32.3	34.6	32.1	31.9	37.1	41.0	32.7	52.5	45.9	54.4	42.9	62.3	57.4	66.0	71.4	75.7	57.1
8	7.8	6.2	10.0	8.7	9.8	6.6	13.5	13.3	18.9	7.7	13.1	8.9	18.0	12.7	15.8	14.0	14.8	23.4	25.5	26.5	24.3	16.1
9	14.1	23.1	22.0	28.3	18.0	17.7	11.5	16.5	17.6	24.2	23.3	26.8	25.8	25.8	31.6	33.3	38.9	29.8	37.5	38.8	44.7	39.0
10	43.5	46.2	44.0	43.5	44.0	41.9	53.8	47.4	39.2	44.4	48.3	51.8	54.1	48.4	52.6	58.0	66.7	63.8	78.7	69.4	77.8	71.4
11	6.5	9.2	18.0	17.0	11.8	14.5	7.7	19.0	9.6	16.7	15.0	8.9	14.5	9.7	19.3	20.0	30.9	14.9	28.3	22.4	35.1	23.8
12	46.8	58.5	44.0	45.7	47.1	50.0	40.4	46.8	34.7	46.9	45.0	48.2	42.6	38.1	45.6	46.0	55.6	53.2	60.4	53.1	72.2	52.4
13	17.7	15.2	32.0	23.4	21.6	17.7	27.5	17.7	14.7	26.6	27.9	26.8	27.4	19.0	29.8	28.0	35.8	34.0	42.6	38.8	55.6	29.3
14	4.8	9.1	10.0	10.9	7.8	6.5	5.8	13.9	13.3	12.3	18.0	8.9	12.9	14.5	12.5	26.5	13.2	21.7	23.4	20.4	33.3	14.6
15	1.6	1.5	4.1	6.4	2.0	4.8	9.6	3.8	8.1	4.6	6.6	1.8	9.7	4.8	14.0	9.8	3.8	8.5	4.2	10.2	19.4	4.8

1. 배우자를 선택한다.
2.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3.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4. 자녀를 양육한다.
5. 가정을 관리한다.
6.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7.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8.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9.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
10. 건강한 생활양식(위험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험한 성행동도 하지 않는다)을 확립한다.
11. 자기계발(새로운 정보를 얻고 기술을 습득)을 위해 노력한다.
12. 형제자매와 잘 지낸다.
13. 부모님께 효도한다.
14. 새로운 일(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15. 노후 준비를 한다.

www.kci.go.kr

표 7 여성들의 발달과업 성취 수준

발달과업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1	0.0	1.7	0.0	1.6	0.0	7.2	13.0	6.1	20.3	18.9	25.4	33.9	50.0	56.3	59.3	76.3	83.3	91.8	83.6	74.6	94.1	76.5
2	0.0	1.7	2.0	1.6	0.0	2.9	3.8	0.0	6.8	3.8	12.1	13.1	21.3	29.8	39.7	43.9	47.9	61.0	45.5	46.2	66.0	55.1
3	0.0	0.0	0.0	0.0	0.0	5.8	9.3	0.0	12.2	7.7	23.7	29.5	38.0	47.9	61.4	71.2	76.1	88.5	76.8	76.1	82.4	82.0
4	0.0	0.0	0.0	1.6	1.8	7.2	3.7	3.0	5.4	0.0	15.3	19.7	20.4	31.3	50.0	44.1	47.2	70.0	52.8	57.6	72.0	57.1
5	0.0	1.7	6.0	11.3	9.1	10.3	9.3	6.1	8.1	2.0	13.6	16.4	22.4	33.3	44.8	49.2	54.3	70.5	59.3	56.9	72.5	58.3
6	0.0	1.7	4.1	11.1	10.9	15.9	25.9	40.0	43.8	48.1	53.3	61.7	60.4	54.3	50.9	48.3	30.4	45.8	34.5	47.8	66.0	66.0
7	16.3	35.0	33.3	40.3	32.7	39.1	40.7	45.5	43.8	50.0	58.5	55.0	63.0	69.6	57.1	61.4	67.6	69.1	58.9	63.6	71.4	79.6
8	14.3	6.9	12.0	20.6	18.2	11.6	18.5	18.5	12.3	9.8	26.3	27.1	20.4	23.9	19.6	29.3	27.1	28.3	38.2	15.4	36.0	24.0
9	16.5	6.9	12.0	19.0	23.6	17.4	27.8	29.2	21.9	30.0	37.9	37.3	37.5	38.3	25.9	23.7	24.6	41.0	32.7	37.9	44.0	34.0
10	56.7	48.3	38.0	55.6	56.4	58.0	63.0	57.6	50.0	60.0	69.8	67.8	59.6	63.8	59.6	71.2	65.2	71.2	76.4	61.5	84.0	85.4
11	4.3	11.9	10.2	11.1	14.8	8.7	20.8	10.8	12.5	19.2	19.6	16.7	14.3	21.3	15.3	15.5	17.4	20.7	27.3	15.4	30.0	24.0
12	63.7	50.8	48.0	44.4	47.2	49.3	52.8	62.5	52.1	56.6	55.4	58.3	59.2	63.8	43.1	45.8	49.3	65.0	52.7	70.8	68.0	64.0
13	22.0	13.6	16.0	15.9	18.5	12.9	25.0	20.0	16.7	20.8	24.6	26.2	24.5	34.0	25.9	25.4	25.0	39.7	36.4	38.7	40.8	34.7
14	2.2	8.5	8.0	13.1	9.3	4.3	15.4	10.8	19.2	17.0	14.5	21.7	18.4	26.1	14.5	24.6	19.1	25.0	29.1	25.0	28.0	26.0
15	1.1	3.3	10.0	17.5	7.4	7.2	9.4	1.6	2.7	7.5	8.5	3.3	4.0	14.6	15.3	15.3	15.7	6.7	23.6	9.4	9.4	10.0

1. 배우자를 선택한다.
2.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3.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4. 자녀를 양육한다.
5. 가정을 관리한다.
6.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7.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8.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9.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
10. 건강한 생활양식(위험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험한 성행동도 하지 않는다)을 확립한다.
11. 자기계발(새로운 정보를 얻고 기술을 습득)을 위해 노력한다.
12. 형제자매와 잘 지낸다.
13. 부모님께 효도한다.
14. 새로운 일(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15.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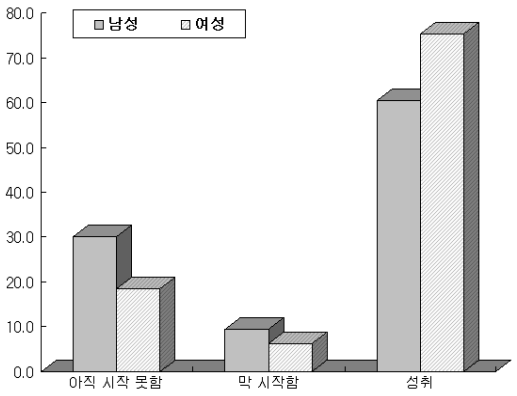

그림 1 '배우자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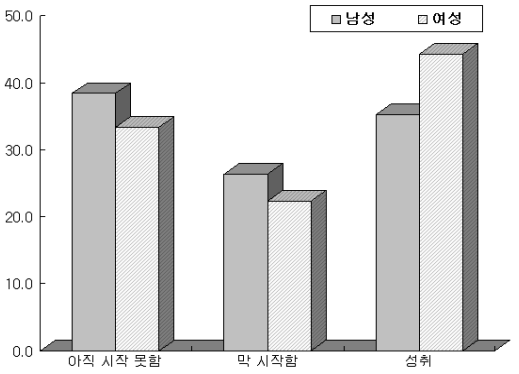

그림 2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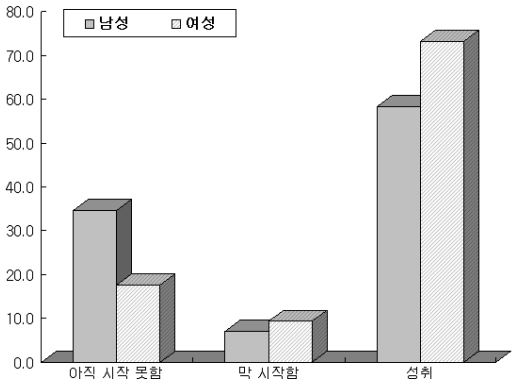

그림 3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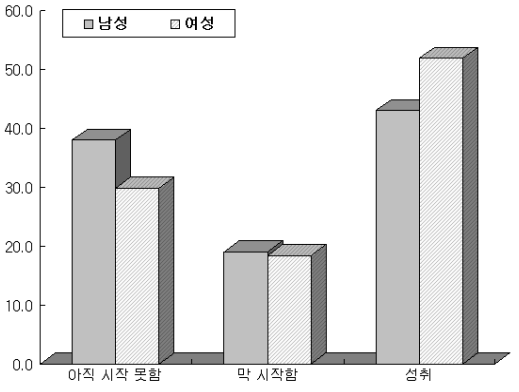

그림 4 '자녀를 양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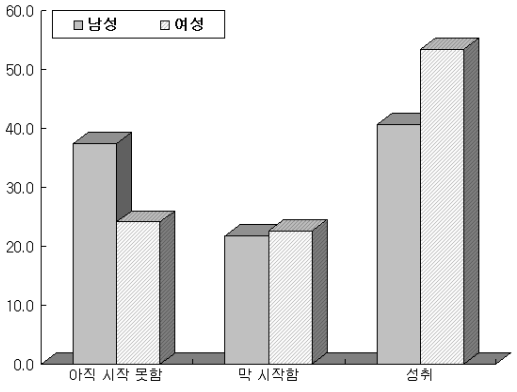

그림 5 '가정을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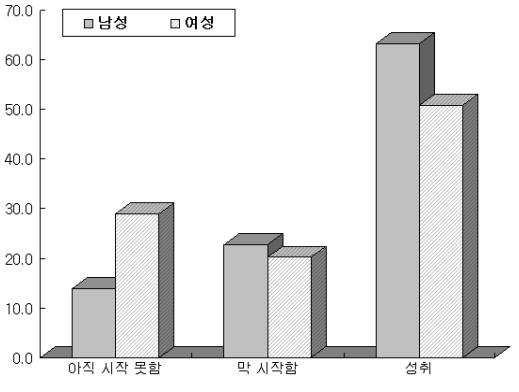

그림 6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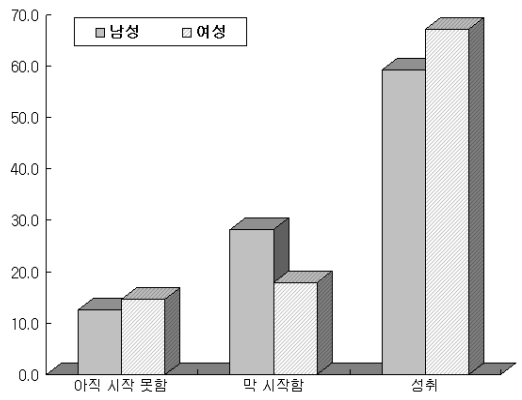

그림 7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과업 즉 '배우자를 선택한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자녀를 양육한다', '가정을 관리한다',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으며, 6개 발달과업 모두에서 여성들의 성취비율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것이 확인될 수 있다.

2.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 지각의 관계

7가지 발달과업의 성취수준에 따라 각 발달과업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지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중요도 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남, 여)x 3(이미 성취함, 막 시작함, 아직 시작 못함)의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발달과업 성취수준을 세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1점, '막 시작했다' 2점 그리고 '이미 성취했다'에 3점을 부여하고, 어느 하나의 발달과업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은 7점 그리고 7개 발달과업을 모두 성취한 사람들은 21점을 부여받는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아직 시작하지 못한 집단과 막 시작한 집단 그리고 성취한 집단이 구분되었다. 표 8은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에 따른 중요도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표 9는 그것을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8에 의하면, 7개의 발달과업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한다'(성별: ($F(2,2577)=16.481$, $p<.001$; 발달과업 성취수준: ($F(2,2577)=20.811$, $p<.001$)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성별: $F(2,2577)=59.825$, $p<.001$; 발달과업 성취수준: $F(2,2577)=33.398$, $p<.001$), '자녀를 양육한다'(성별: $F(2,2577)=15.892$, $p<.001$; 발달과업 성취수준: $F(2,2577)=43.961$, $p<.001$), 그리고 '가정을 관리한다'(성별: $F(2,2577)=12.162$, $p<.001$; 발달과업 성취수준: $F(2,2577)=29.426$, $p<.001$)에서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배우자를 선택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자녀를 양육한다', 그리고 '가정을 관리한다'의 과업을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였고, 사후분석으로 Tukey검증을 실시한 결과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들이 막 시작했거나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이 과업들을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F(2,2577)=15.703$, $p<.001$ 그리고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F(2,2577)=29.681$, $p<.001$로서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분석으로 Tukey검증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들이 막 시작했거나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이 과업을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였고,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들은 막 시작한 사람들보다 그리고 막 시작한 사람들은 발달과업을 아직 시작

www.kci.go.kr

표 8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 수준에 따른 발달과업 중요도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과업성취정도	*N*	1	2	3	4	5	6	7
남	성취	373	2.93(*.276*)	2.83(*.402*)	2.92(*.305*)	2.92(*.310*)	2.90(*.309*)	2.87(*.351*)	2.63(*.530*)
	막 시작함	340	2.88(*.359*)	2.75(*.475*)	2.82(*.423*)	2.77(*.502*)	2.79(*.426*)	2.74(*.484*)	2.51(*.550*)
	아직 시작 못함	534	2.82(*.437*)	2.71(*.516*)	2.74(*.499*)	2.71(*.526*)	2.78(*.432*)	2.79(*.425*)	2.43(*.553*)
	전체	1247	2.87(*.377*)	2.76(*.475*)	2.81(*.434*)	2.79(*.473*)	2.82(*.401*)	2.80(*.424*)	2.51(*.551*)
여	성취	467	2.90(*.319*)	2.83(*.409*)	2.79(*.440*)	2.85(*.384*)	2.86(*.355*)	2.54(*.527*)	2.62(*.519*)
	막 시작함	395	2.77(*.524*)	2.76(*.485*)	2.64(*.597*)	2.68(*.581*)	2.73(*.500*)	2.66(*.502*)	2.54(*.513*)
	아직 시작 못함	474	2.76(*.532*)	2.68(*.571*)	2.59(*.622*)	2.63(*.590*)	2.69(*.527*)	2.73(*.480*)	2.43(*.540*)
	전체	1336	2.81(*.470*)	2.76(*.497*)	2.67(*.563*)	2.72(*.532*)	2.76(*.471*)	2.64(*.509*)	2.53(*.530*)
전체	성취(a)	840	2.91(*.301*)	2.83(*.406*)	2.85(*.391*)	2.88(*.355*)	2.88(*.336*)	2.68(*.484*)	2.62(*.524*)
	막 시작함(b)	735	2.82(*.458*)	2.76(*.480*)	2.72(*.531*)	2.72(*.547*)	2.76(*.468*)	2.70(*.496*)	2.52(*.530*)
	아직 시작 못함(c)	1008	2.79(*.485*)	2.70(*.543*)	2.67(*.565*)	2.67(*.558*)	2.74(*.481*)	2.76(*.452*)	2.43(*.547*)
	전체	2583	2.84(*.428*)	2.76(*.487*)	2.74(*.510*)	2.75(*.505*)	2.79(*.440*)	2.72(*.476*)	2.52(*.541*)

1. 배우자를 선택한다.
2.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3.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4. 자녀를 양육한다.
5. 가정을 관리한다.
6.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7.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이 과업을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에서는 성별의 주효과(F(2,2577)=70.165, p<.001)와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F(2,2577)=4.443, p<.05) 및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상호작용 효과(F(2,2577)=21.260, p<.001)가 모두 유의하였다.

그림 8은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에서의 연령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한다.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달과업 성취수준 내에서 성취한 집단[F(1, 838)=104.237, p<.001]과 막 시작한 집단[F(1, 733)=5.459, p<.05] 및 아직 시작하지 못한 집단[F(1, 1006)=3.969, p<.05]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발달과업을 성취한 남성들과 막 시작한 남성들 및 아직 시작하지 못한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과 막 시작한 여성들 및 발달과업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여성들 보다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의 과업을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각 성별 내에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들[F(2, 1244)=7.616, p<001]과 여성들[F(2, 1333)=16.917, p<.001] 모두에서 발달과업 성취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으로 Tukey검증을 실시한 결과 발달과업을 성취한

www.kci.go.kr

표 9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 수준에 따른 각 발달과업의 중요도 지각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발달과업	변량원	*F*값	사후분석
1. 배우자를 선택한다.	성별	16.481***	a>b,c
	발달과업 성취수준	20.811***	
	성별x발달과업 성취수준	1.613	
2.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성별	.109	a>b,c
	발달과업 성취수준	15.703***	
	성별x발달과업 성취수준	.390	
3.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성별	59.825***	a>b,c
	발달과업 성취수준	33.398***	
	성별x발달과업 성취수준	.590	
4. 자녀를 양육한다.	성별	15.892***	a>b,c
	발달과업 성취수준	43.961***	
	성별x발달과업 성취수준	.036	
5. 가정을 관리한다.	성별	12.162***	a>b,c
	발달과업 성취수준	29.426***	
	성별x발달과업 성취수준	.828	
6.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성별	70.165***	a,b>c
	발달과업 성취수준	4.443*	
	성별x발달과업 성취수준	21.260***	
7.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성별	.269	a>b>c
	발달과업 성취수준	29.681***	
	성별x발달과업 성취수준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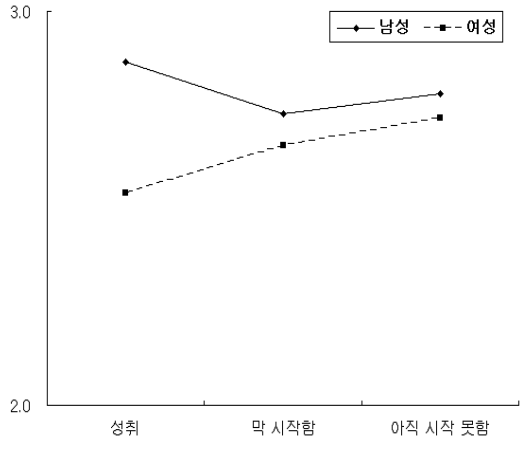

그림 8 성별과 발달과업 성취수준에 따른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의 상호작용 효과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막 시작했거나 아직 시작하지 못한 남성들보다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의 발달과업을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은 발달과업을 막 시작했거나 아직 시작하지 못한 여성들보다 이 과업을 덜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요약하면 '배우자를 선택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자녀를 양육한다', '가정을 관리한다' 그리고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에 대한 남성들의 중요도 지각점수가 여성들의 점수보다 더 높았고, 6개의 발달과업 모두에서 발달과업을 성취할수록 각 발달과업에 대한 중요도 지각점수가 더 높은 경향을 나

www.kci.go.kr

타내었다. 흥미롭게도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에서는 이 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이 성취한 여성들이나 아직 시작하지 못한 여성들보다 이 과업을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여 남성들과는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성인초기 시작시점의 추정

성인초기의 시작시점이 언제인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성인초기 발달과업으로 확인된 7개 발달과업 각각에서 이미 성취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0%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하나 이상의 발달과업에서 50% 이상이 성취했다고 응답한 시점을 성인초기 시작시점으로 가정하였다. 0%의 의미는 그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들이 단 한사람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시되었고 50% 이상의 기준은 Arnett(2000)의 추정방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 결과 남성들은 7개의 발달과업 중에서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와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의 응답비율이 처음으로 50% 이상에 도달한 연령인 30세가 성인초기 시작시점으로 추정될 수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의 응답비율이 27세에 처음으로 50% 이상을 나타내었으나 '자녀를 양육한다'에서 0%를 보여,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와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의 두가지 발달과업에서 50% 이상이 성취하였다고 응답한 연령인 28세를 성인기 시작시점으로 추정하였다.

논 의

이 연구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남녀 2,583명(남성: 1,247명, 여성: 1,336명)을 대상으로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은 무엇이고 각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그 과업에 대한 중요도 지각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으며, 성인초기의 시작시점은 언제인지를 추정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Havighurst가 제안한 8개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을 포함하여 선행연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거나 우리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15개의 발달과업이 선정되었고, 발달과업 질문지를 사용하여 각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 지각 정도가 측정되었다.

발달과업의 성취수준에서 '이미 성취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을 바탕으로 18세부터 39세까지 어느 연령에서든 응답자의 50% 이상이 성취하였다고 응답한 과업들을 성인초기 발달과업으로 선정한 결과 7개의 발달과업이 선정될 수 있었다. 즉 '배우자를 선택한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자녀를 양육한다', '가정을 관리한다',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록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직업생활을 시작한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의 발달과업을 더 일찍 성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배우자를 선택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자녀를 양육한다', '가정을 관리한다' 그리고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의 발달과업을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직업생활을 시작한다'를 제외한 6개의 발달과업 모두에서 발달과업을 성취할수록 그 과업을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이 성취한 여성들보다 이 과업을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여 남성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7개의 발달과업에서 이미 성취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0%가 없으면서 하나 이상의 발달과업에서 50% 이상이 성취했다고 응답한 연령을 성인초기 시작시점으로 추정한 결과 남성들은 30세 그리고 여성들은 28세에서 성인초기

www.kci.go.kr

에 진입한다는 잠정적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7개의 발달과업은 Havighurst(1952)가 제안한 8개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중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를 제외한 7가지 발달과업과 일치하였다. 7개의 발달과업 중 처음 5개의 발달과업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는 가정관련 과업들이었고, 나머지 2개의 발달과업은 직업 및 시민의 의무와 관련한 과업들이었다. 그러나 학습자 역할이 성인초기 동안에도 계속된다고 보고한 James 등(2006)과는 달리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성인초기 발달과업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확립한다'는 더 이른 연령에서 이미 50% 이상이 성취하였다고 응답함으로써 성인초기 발달과업에 포함되지 못하여 Schulenberg 등(2004)의 연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과업의 구체적 내용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할 뿐 아니라 한국인들은 성인초기에 진입하면 친구나 가까운 타인과의 관계형성보다는 오로지 가족이나 개인적 역할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성인초기 발달과업으로 지각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38세의 남성들만이 50% 이상이 성취했다고 응답하여 보다 이후의 단계에서 성취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것은 Havighurst가 50년도 더 전에 제안한 성인초기 발달과업과 한국인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이 단지 하나의 과업에서만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결국 발달과업을 규정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발달이 규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화에 따른 변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성인초기 여성들의 발달과업 성취가 남성들보다 더 일찍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Heckhausen(2000)나 Seiffge-Krenke & Gelhaar (200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여성들의 평균 초혼연령이 남성들보다 더 낮고, 특히 한국 남성들은 군복무 때문에 취업시기도 늦어지므로 여성들의 발달과업 성취가 남성들보다 더 빠른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들은 빠른 발달과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 발달과업에 대해 남성들보다 더 낮은 중요도를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6가지 발달과업 중 5개의 과업이 가족관련 과업들로서 전통적인 여성과업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 과업들을 덜 중요시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약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여성들은 관계발달과 관련된 발달과업에 남성들보다 더 높은 중요성을 할당한다는 Gilligan (1996)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문제는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낮은 중요도 점수를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직업생활을 성취한 여성들보다 아직 직업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여성들이 이 과업을 더 중요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은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막상 직업을 갖게 되면 남성들만큼 직업생활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결혼생활과 직업생활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이중부담이 발달과업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도 체계적으로 고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남성들은 30세에 그리고 여성들은 28세에 성인초기에 진입한다는 추정을 할 수 있었

www.kci.go.kr

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들의 결혼비율이 전집의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평균 학력수준도 전집의 평균수준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면 결혼과 취업 및 자녀출산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인의 성인초기 시작시기는 이 연구에서 확인된 연령보다 더 어린 연령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만약 유층할당표집(stratified quota sampling)이 이루어지고 종단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면, 결혼과 함께 시작되는 성인초기의 시작시기는 결국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2008) 자료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41.7%와 여성의 56.7%가 25세부터 29세 사이에 결혼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Arnett (2000)의 제안대로 자신을 성인이라고 지각하는 비율이 50% 이상에 이르는 26세 경이 성인초기 시작시기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미국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여성의 결혼 중앙치 연령이 25-26세(Noble, Cover, & Yanagishita, 1996)라는 사실은 성인초기 시작연령이 26세경이라는 Arnett의 제안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비록 이 연구가 횡단연구임에도 불구하고 18세부터 39세까지의 모든 연령의 남녀가 고루 표집되었으므로 출생동시집단 효과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지만, 편의표집이 갖는 한계 때문에 탐색적 수준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시작시기에 대한 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인초기는 물론 전생애 동안의 발달과업과 각 발달단계의 시작시기를 규명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국인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을 확인하고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 지각의 관계를 규명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정도가 높은 사람들의 성인초기 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2004).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개발 및 행복을 위한 제언. http://www.hoseo.ac.kr/~mskim.

장휘숙(2008). 가족심리학 제 2판. 박영사.

통계청(2006). 2006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2008). 인구・가구 및 고용・노동・임금 통계, http://www.kosis.kr/

현경자(2004).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과 주제에 대한 종단적 탐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8(12), 60-100.

Arnett, J. J. (1997). Young people's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Youth & Society, 29*, 1-23.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Arnett, J. J. (2003).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ong emerging adults in American ethnis groups. In J. J. Arnett, & N. L. Galambos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Exploring cultural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an Francisco: Jossey-Bass.

Cherlin, A. J., Scabini, E., & Rossi, G. (1997). Still in the nest: Delayed home leaving in

www.kci.go.kr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18*, 572-575.

Galambos, N. L., Barker, E. T., & Tilton-Weaver, L. C. (2003). Who gets caught at maturity gap? A study of pseudomature, immature, and mature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253-263.

Galambos, N. L., Turner, P. K., & Tilton-Weaver, L. C. (2005). Chronological and subjective age in emerging adulthood: The crossover effec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 538-556.

Gilligan, C. (1996). The centrality of relationships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A puzzle, some evidence, and a theory. In G. G. Noam & K. W. Fischer (Eds.), *Development and vulnerability in close relationships*. Hillside, NJ: Erlbaum.

Havighurst, R. (195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McKay.

Heckhausen, J. (1999). *Developmental regulation in adulthood: Age-normative and sociostructural constraints as adaptive challeng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ckhausen, J. (Ed.). (2000). *Motivational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Developing motivation and motivating development*. Amsterdam: Elsevier.

James, W. B., Whitte, J. E., & Galbraith, M. W. (2006). Havighurst's social roles revisite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1), 52-60.

LeBlanc, D., & Wolff, F. C. (2006). Leaving home in Europe: The role of parents' and childrens' incomes. *Review of Economy and Household, 4*, 53-73.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Ramirez, M. (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143-169.

Mogelonsky, M. (1996). The rocky road to adulthood. *American Demographics, 18*, 26-36,

Neugarten, B. L., & Datan, N. (1973).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the life cycle. In P. B. Baltes & K. W. Schaie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p. 53-69). New York: Academic Press.

Noble, J. cover, J., & Yanagishita, M. (1996). *The world's youth*. Washington, DC: Populataion Reference Bureau.

Schulenberg, J. E., Bryant, A. L., & O'Malley, P. M. (2004). Taking hold of some kind of life: How developmental tasks reltate to trajectories of well-being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1119-1140.

Seiffge-Krenke, I. (1998). chronic disease and perceived developmental progression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073-1084.

Seiffge-Krenke, I., & Gelhaar, T. (2007). Does

www.kci.go.kr

successful attainment of developmental tasks lead to happiness and success in later developmental tasks?-A test of Havighurst's(1948) theses. *Journal of Adolescence. 4*, 1-20.

Shanahan, M. 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67-692.

1차 원고 접수: 2008. 10. 14
수정 원고 접수: 2008. 11. 05
최종게재결정: 2009. 11. 06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8. Vol. 21, No. 4, 109-126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mental Tasks and Beginning Time of Early Adulthood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exploratory study examined what were the developmental tasks of early adulthood, which relationships were there between the achievement of developmental tasks and the subjective importance for each task and when was the beginning time of early adulthood with 2,583(man: 1,247, women: 1,336) participants from 18 to 39 years. Analysis revealed that seven developmental tasks were selected for early adulthood among 15 developmental tasks including 8 ons of Havighurst(1952). Although females reported a higher achieved status in six tasks, they reported a lower subjective importance in five tasks than men. As a whole the achievers of developmental tasks reported higher subjective importance at those tasks. Also 30 years for men and 28 years for women were speculated as the beginning time of early adulthood.

key words: developmental task, achieved status, subjective importance, early adulthood

www.kci.go.kr